

# 드라마 '태양의 후예 OST' 음원사이트 돌풍

### 주간차트 1위~6위 석권

### 줄거리와 맞아떨어져 인기

신드롬을 일으키며 시청률 30%를 넘긴 송중기·송혜교 주연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OST로도 광풍을 일으키고 있다. 18일까지 발표된 6곡이 주요 음원사이트의 실시간차트에서 '출세유기'에 성공했다.

CI E&M의 음악서비스 엠넷닷컴의 3월 세 번째 주(14~20일) 주간차트에서는 1위부터 6위까지 '태양의 후예' OST가 차지했다.

거미의 '유 아 마이 에브리씰'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1위, 매드클라운과 김나영의 '다시 너를'이 2위를 차지했다. 케이윌의 '말해! 뭐해?'가 3위에 랭크됐다.

4위는 장기간 인기를 누리고 있는 듀오 '다비치'의 '이 사랑', 역시 흥한 중인 가수 윤미래의 '올웨이즈'가 5위를 차지했다. '엑소' 첸과 판치의 '에브리타임'은 지난주보다 1계단 오르며 6위에 안착, '태양의 후예' OST를 완성했다. 24일 0시 이 드라마의 또 다른 OST인 린의 '위 드미' 역시 주요음원사이트에서 단숨에 1위로 진입했다.

드라마 OST가 음원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처럼 잇따라 발표되는 곡들이 장기간 차트에 머물며 새로 나온 곡들과 함께 출세 유기를 하는 건 이례적이다. 최근 tvN 응답하라1988 OST도 이런 인기는 누리지 못했다. 기존의 음원강자인 가수 이하이와 버즈커 비스커 출신 장병준의 신곡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귀에 감기는 멜로디 등이 인기 요인인 건 당연하다. 무엇보다 드라마의 줄거리,



드라마의 줄거리, 상황들과 맞아떨어져 귀에 감기는 멜로디가 매력적인 '태양의 후예' OST

상황들과 맞아떨어져서 호응을 얻고 있다. '송송커피' (송중기·송혜교)의 테마송인 거미의 '유 아 마이 에브리씰', '구원커피' (진구·김지원)의 테마곡인 다비치의 '이 사랑' 등이 대표적이다. 음원의 인기는 음반 판매량으로도 이어져 예약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1만장 가까이 팔아치우기도 했다.

드라마 '비밀' 편지 등의 OST에 참여하고, '개미'라는 예명으로 작곡가로 활동 중인 강동윤씨가 음악감독을 맡았다.

OST 제작사인 뮤직앤유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많은 사랑을 받으며, OST도 함께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다"며 "OST

제작 단계에서부터 드라마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고심을 거듭하며 곡을 선정했고, 무엇보다 뛰어난 실력의 가수들이 참여해주면서 완성도가 높아졌다"고 전했다. 총 10곡이 발표될 예정으로 드라마 음원 강자 중 한 명인 'J.Y.' 김준수의 곡이 예정돼 있어 앞으로도 '태양의 후예' OST 광풍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뮤직앤유 관계자는 "배우 방영되는 드라마와 가장 잘 어울리는 곡들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양의 후예'는 또 OST계 새로운 가수를 발굴하기도 했다. 드라마 OST를 주로 부르는 가수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

승철과 백지영이 대표적이며 린, 김준수 등이 손에 꼽힌다. 린과 김준수가 이 드라마의 OST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매드클라운과 김나영 등 신선한 얼굴이 눈에 띈다.

이와 함께 '태양의 후예'는 중국어권에서 돌풍을 일으킨 것을 넘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도 포함해 19개국에 판권이 팔렸다. 이에 따라 OST 역시 해외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어권에서 신선한 열풍을 일으킨 '별에서 온 그대'의 OST '미이 데스티니'를 불러 역시 현지에서 인기를 끈 린 같은 사례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인진수기자

## '남원 100년의 기억을 걷다' 사진전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내에 위치한 향토박물관은 2016년 새 봄을 맞아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약 2주간 '남원 100년의 기억을 걷다'라는 주제로 남원의 옛 추억 사진전을 개최한다.

사진전의 출품된 사진들은 남원메모리사업에 의해 발굴된 자료들로 광한루를 비롯한 남원의 추억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들로 구성되었다.

남원메모리사업은 남원시 문화도시팀의 문화도시사업의 일환으로 남원의 추억의 앨범 모으기 사업으로 남원의 생활사, 마을, 문화유산, 인물상 등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작업이다. 이 사진수집에는 6명의 수집요원이 남원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수집 활동을 하면서 사진 속에 남원의 문화와 역사 및 예전의 생활상을 발굴하여 생생하게 기록으로 재구성해 나가고 있다.

이번 전시는 금암봉 요철의 옛 썰다리, 용성관 우시장, 향교, 운봉 역새집 등의 다양한 옛 모습과 결혼풍습, 장례 및 상여, 농악, 모내기, 새미를 사업의 풍경 등등 다채로운 추억의 사진을 관람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향토 박물관은 올해에도 새롭고 친근하면서도 유익한 주제들로 기획전을 추진하여 남원시민 및 남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신선한 전시 관람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남원=유영철기자



## 올해의 관광도시 '무주'

### 7월말까지 사진으로 만나요

"2016 올해의 관광도시 무주"를 기념하기 위한 무주 관광 사진전이 오는 7월 말까지 무주읍 만남의 광장 내 상설전시장에서 개최된다.

무주사진가협회 주관하는 무주관광사진전은 국립공원 덕유·적상산 구천동계곡, 한풍류 칠연계곡 등 무주의 아름다운 절경을 주제로 하며,

덕유산 지리대 2백여 개체가 자생 중인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광릉요강꽃'의 아름다운 자태와 반딧불축제, 얼음축제, 그란프론트 자전거대회, 금강 래프팅 등 작품 20점이 선보인다.

무주사진가협회 이윤송 회장은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무주의 사계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를 소개했다"며 "사진에 담긴 무주가 올해의 관광도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귀한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24일 열린 개막식은 황정수 무주군수를 비롯해 무주군의회 이한승 의장과 농협 정재호 무주지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황 군수는 격려사에서 "사진을 통해 해마다 무주관광 가이드가 돼주시는 회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드린다"며 "사진으로 피어난 무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안겨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사진가협회는 1997년 사진동우회로 창립, 20여 년의 전통을 가진 민간 주도의 사진단체로 35명의 회원들이 전시회와 공모전,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민살풀이 전승자 장금도 명인 군산공연

### 내일 오후4시 장미공연장

국내유일의 민살풀이(수건 없이 추는 살풀이춤) 전승자 장금도 명인의 춤 세계를 재조명하는 공연이 군산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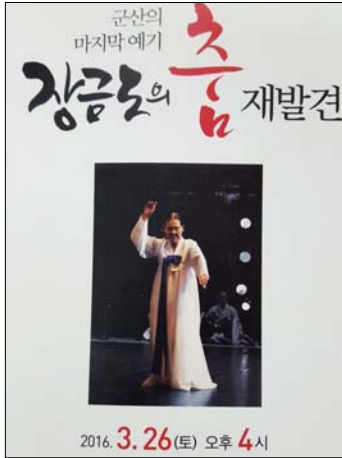
이번 행사는 '마지막 예기 장금도의 춤 재발견'이란 주제로 사단법인군산예총이 주최하고 매거진 군산이 주관하여 26일 오후 4시 장미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신명숙 대학교 교수 초청공연과 장금도의 일생을 조명한 동영상 상영, 토론화상으로 진행되며 인근 미즈커피에서는 장금도의 발자취 관련 사진 전시회도 개최된다.

장금도(89)는 군산에서 태어나 어린나이에 이미 가무로 군산지역을 주름잡았으나 일제강점기시 활동을 중단했다가 광복 후 활동을 재개했다.

1983년 국립극장 '명무전'에 초대되어 중앙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프랑스, 일본 등 해외로 초청공연을 다니게 되면서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된다.

대표작으로는 한국인의 넋이 담긴 민족의 춤 명인전(1990), 제1회 서울세계무용



마지막 예기 장금도 선생 공연 포스터

축제명무초청(1998), 전라도의 춤 전라도의 가락(2004),제8회 서울세계무용축제초청(2005), 전무후무 프랑스 초청공연(2006), 작별의 춤 헤어화(2013)등을 뽑는다. /군산=문정근 기자

## 완주복합문화공간 아트플랫폼 전문인력 채용

### 모집 인원 3명으로 문화융합 복합공간 재창조할 인재 환영

(재)완주문화재단은 완주의 문화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완주 복합문화공간 G3 Art platform(아트 플랫폼)에서 함께 일할 전문 문화인력 채용에 나섰다.

모집 인원은 3명으로 완주문화발전과 문화재단 사업 확충을 위한 완주 복합문화공간 G3 Art platform(아트 플랫폼) 직원을 채용하여 활동이 정지된 공간을 완주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문화 활동의 근거를 마련하며 디자인과 공예가 결합된 문화융합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해 문화 체험 공간으로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모집분야는 기획운영 전반을 담당할 기획운영팀장 1명, 문화재생 조성사업에 따른 공간재생 및 운영 업무, 문화예술커뮤니티명 전시, 교류, 창작, 교육, 포럼 등 업무 총무, 회계명 전담할 참신한 전문 문화인력을 모집 하고자 한다.

이번에 채용되는 직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폐 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 G3 Art platform(아트 플랫폼) 조성사업의 전반적

인 프로그램개발과 운영 등의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완주문화재단 권찬환 상임이사는 복합문화공간 G3 Art platform(아트 플랫폼) 사업단이 "완주군의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민을 위해 많은 문화적 고민을 하며 심혈을 기울여 완주군민들의 문화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공개채용 공고 및 접수 기간은 오는 3월 31일 (목)까지이며 이메일 접수와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완주 복합문화공간 G3 Art platform(아트 플랫폼)은 ▲Green Art Space (폐산업시설을 활용한 친환경 복합문화공간 재생) ▲Group Artists Movement (다양한 복합장르 현대창작 그룹 운동 및 활동) ▲Ground Art platform (지역(로컬)의 주민 예술인 전문가 등의 활동 근거지 마련) 의미를 담고 있다.

자세한 문의를 (재)완주문화재단 기획운영팀 담당자 전화 262-3955 (재)완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wfac.or.kr) 참조하면 된다. /완주=이종복기자

##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2016년 3월 25일>

### ▷쥐띠

46년생: 마음을 비우고 때론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다.  
60년생: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운이다.  
72년생: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좋은 운이 아니니 모험이나 중요한 사항은 다름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  
84년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

### ▷용띠

52년생: 차등에는 힘드나 나중에는 편안해진다.  
66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나니 손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78년생: 사소한 일에 신경이 곤두서는 운.  
88년생: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천천히 전진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

### ▷원숭이띠

56년생: 공과 사부 정략하게 구별해야 한다.  
68년생: 지나친 욕은 일을 그르치게 할 수 있으니 너무 넘쳐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상태를 유지하라.  
80년생: 자신의 목표와 해이한 일을 기억하면 문제가 없다.  
92년생: 정신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운.

### ▷소띠

48년생: 공식적인 일은 옳으나 사적인 일은 불리한 운이다.  
61년생: 매사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좋은 결실을 얻는다.  
73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계획을 세워 움직이지 않으면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는 운이다.  
85년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에 좋은 운이다.

### ▷범띠

53년생: 한사람의 권을 들면 상황이 악화되니 주의하라.  
65년생: 손재수가 따르는 운이니 먼저 베풀어라.  
77년생: 작은 소망은 이루어지나 큰 소원은 이루어지지 어려워 욕심은 버려라.  
89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빛을 발하며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운이다.

### ▷닭띠

57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따르니 투자나 투기는 불리.  
69년생: 뒷사람의 역이 따르는 운이니 필과 형등을 분명하게 하고 결승회를 앞지 않아야 하겠다.  
81년생: 자신의 실수로 인해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는 운.90년생: 사소한 거짓말이 큰 재앙을 불러오는 운이니 조심하라.

### ▷호랑이띠

50년생: 금전거래등 주의해야 하는 운이다.  
62년생: 놀라거나 정신적으로 힘든 운.  
74년생: 공과 사부 정략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사람으로 인해 곤란해진다.  
86년생: 무리한 욕심은 친필양반의 길에 빠지게 하니 주의하고 타인의 조언을 구하라.

### ▷말띠

54년생: 식욕이 있는 운이니 모험이나 식사약속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66년생: 매사에 주의할 운이다.  
78년생: 뒷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운이니 주저하지 말고 결행하라.  
90년생: 작은 노력을 해도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이다.

### ▷개띠

49년생: 사립과의 관계가 회복 될 수 있는 운이니 먼저 손을 내밀어라.  
61년생: 고독함을 즐겨야 하는 운이다.  
73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  
85년생: 정신적으로 힘든 운이니 새로운 시작은 금물이다.

### ▷토끼띠

51년생: 지나친 욕심으로 구설수와 시비가 따르는 운.  
63년생: 순수한 마음이 아닌 계획적으로 타인을 대하면 상대가 알게 되니 주의하라.  
75년생: 몸과 마음을 겸허히 하고 인정시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 운.  
87년생: 강력한 리이벤이 나타나 신경전 예감되는 운.

### ▷양띠

55년생: 구설수가 따르는 운이니 타인과 어울리기 보다는 고즈넉함을 즐기는 것이 좋겠다.  
67년생: 동료와 일적인 문제로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라.  
79년생: 문서에 관련된 일을 하기에 좋은 운.  
91년생: 주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운이다.

### ▷돼지띠

47년생: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59년생: 매사 예방이 필요한 운이다.  
71년생: 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 대립은 피하고 함께 일을 도모하라.  
83년생: 0퍼센트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10퍼센트에서 실패할 수 있다.